

한국광학기기협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 2008년 사업 예산 확정 및 신임 임원 선임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1차 정기총회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렸다.

총회는 이종구 회장의 개회 선언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가 200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7년도 잉여금 처분(안), 신임 임원(회장) 선임,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종구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협회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한 뒤 “이미 총회 안내장 및 제4호 의안에 상정되어 알고 계시듯이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협회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삼성전자의 DM총괄이며 삼성테크윈의 카메라부문장으로 계신 박종우 사장을 후임 협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우 신임 회장께서는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에 우리 광학산업 발전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박종우 신임 회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협회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알차게 협회를 꾸려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본 협회 이택희 부회장은 2007년도 협회의 사업보고를 통해 전년도에 회원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총 13개 사로 이중 정회원이 10개 사, 특별회원이 3개 사이고 임의탈퇴와 제명업체가 총 19개 사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보고에서는 2008년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레이저 응용 기능성 표면제어 및 시스템 개발’ 과제의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사업이 완료된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적과 작년 5월부터 시작하여 총사업기간 60개월의 신규사업인 정밀 광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역시 사업이 완료된 소형카메라 광학시스템 성능평가 방법의 표준화 사업을 비롯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국내외 전시사업, 광학관련 표준화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밖에 회원사 경쟁력 제고지원과 관련하여 한·미 FTA 관련 품목별 영향분석 및 지원 과제안 제출, 광학기계정비 산업기사 종목 신설 타당성 의견 제출, 사무기기 관련하여 수입중고복사기 안전인증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안전인증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도출한 것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진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이택희 부회장은 “올해 협회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과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강화,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 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는 광학산업기술기반 확충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부과제는 물론 중기거점사업 및 차세대 신기술사업과 관련한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인 정밀 광학기술 양성사업도 적극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1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열렸다.



▶이종구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종우 신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택희 상근부회장의 진행으로 협회 사업보고가 있었다.



▶퇴임사를 하고 있는 이중구 전 회장.



▶박종우 신임 회장이 회원사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이중구 전 회장에게 증정했다.



▶박종우 신임 회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이 협회 및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했다.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광학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4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올해 1월 'PMA'에 이어 9월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Photokina 2008' 등 정부지원을 받는 해외 전시회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광학관련 표준화 사업과 관련하여 광학산업 분석 및 표준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 기술표준원에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광학 및 광학기기(TC172) 국제표준화 활동과 사무기기 ISO/SC28 국제 표준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 실무협의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공동연구과제 도출 및 업계 정보교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종별 현안문제를 도출하여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중국 등 외국 광

학업체와의 상호방문을 통한 기술교류를 추진 및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광학전시회 공동참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광학관련 유력한 해외자료의 번역 및 책자발간을 비롯하여 협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광산업 정보제공 및 회원사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이중구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대신할 협회의 새로운 사령탑 자리에 삼성전자 DM총괄 박종우 사장이 선임됐다.

박종우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요 기반산업인 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회원사 및 협회 여러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중구 전임 회장님 이하 회원사 여러 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회장의 소임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한국광학기기협회 200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 신임 임원 선임 및 「광학세계」 온라인 활용 극대화 방안 논의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는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후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0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의 건(감사 보고),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의결의 건, 2007년도 잉여금 처분(안) 의결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기타 안건으로 신임 회장 선임관련 사전협의 건이었다.

2007년도 사업보고에서 협회 및 회원현황, 주요 사업이 보고 됐으며, 결산 보고에서는 결산 총괄표, 당기수지총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2007년도 예산

결산 대비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이종구 회장이 잔여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중도하차함에 따라 후임 회장 선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회사정리나 광학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기본회비 장기 미납되는 업체에 대한 제명 등 처리문제와 협회지인 「광학세계」의 온라인상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탁희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부회장과와 이사를 증원한 바 있으나 삼성테크윈이 회장사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사로 남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사무국에서는 세부적인 기획 및 검토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 안건심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종구 회장

■ 한국광학기기협회 임원 명단

(업체명기나더순)

회장	박종우
삼성전자(주)	
부회장	문영기
(주)삼양옵틱스	우석형
(주)신도리코	성규동
(주)이오테크닉스	이병극
(주)캐리마	채진석
한국전광(주)	
이사	허두철
(주)디오스텍	박형기
부원광학(주)	김기철
(주)산주	이종구
삼성테크윈(주)	박희재
에스엔유프리시전(주)	이원승
(주)이오시스템	김천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김도열
하나기술(주)	정광은
한국후지제록스(주)	이을성
해성옵틱스(주)	황윤호
현대포토닉스	
감사	
(주)한광옵토	노원복